

주임신부: 오대석 바오로 925-259-2512 사목회장: 이주하 요한사도 626-664-4508 총구역장: 조재우 요 셉 408-966-5496

"말씀과 성찬의 시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

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2025년 6월 1일 / 제692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s: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 시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신심단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Ī	유 아 세 례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홍순미 제1독서 김태현 제2독서 안희재

입당 137

봉헌 215, 510

Narrator Hawlan 1st Rdg Chris Sigua 2nd Rdg Mira Ng

성체 170, 152 파견 141

입당송 |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1-11

화 답 송 | 시편 47(46),2-3.6-7.8-9(◎ 6)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 2독 서 | 에페 1,17-23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루카 24,46-53

영성체송 |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Date	Sunday School	Priest
06/01	N	Fr Gerald
06/08	N	Fr Gus
06/15	N	Fr Jim
06/22	N	Fr Philip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흥 요한사도, 배비임 알비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히기



19. 천지의 창조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

글/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지난 겨울 너무나 자주 오는 눈을 맞으며, 이번 여름 너무나 무더운 날씨를 경험하며 우리가 사는 지구가 참 많이도 망가져 있음을 실감하고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함께하며 우리는 이웃 사랑이 더 이상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도 실천해야 할 계명을 깨닫습니다.

사도 신경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서 "하늘과 땅"은 당연히 실제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것, 피조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땅은 인간의 세계를 의미하며, 하늘은 창공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마태 5,16)라는 표현에서처럼 하느님께서 계시는 장소이며 영적 피조물들인 천사들이 하느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는 장소.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느님과 함께 할 종말론적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26항 참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설명하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먼저 천사들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천사의 존재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순수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는 사실 그들이 맡은 직무를 가리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사명을 맡아 활동할 때에 그들을 천사로 부른다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29항). 하느님께 시중드는 영인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는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히브 1.14 참조)이며 그래서 우리들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36항).

유형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특히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은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저마다고유한 존재를 지니며, 저마다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하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339항), 피조물 각자가 가진 아름다움은 무수한 다양성과차별성 가운데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느님의 무한한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41항). 우리가 그 어떤 피조물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보호하며 무질서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QR 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147~155쪽, 302~324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첫영성체 아이들의 후기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성당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다. 처음에 성당을 나가고, 어거스틴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예수님과 기도를 느낄 수 있었다. 첫영성체 받는 날, 엄청 긴장되고 떨렸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난 뒤, 나는 조금 예수님과 친해진 것 같다. 자기 전에 기도 습관이 생겼다. 가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

첫영성체 교리 수업을 듣고 노래도 외워야 해서 힘들었지만, 첫영성체를 받을 때 하느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서 기뻤습니다. 신부님. 선생님과 친구들하고도 가까워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당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첫영성체 날에 예수님의 몸을 받은 다음에 무서울 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랑 영성체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선물도 많이 받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파티에서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눈부셨어요. 하이킹에서 한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첫영성체 미사에서 가만히 소리 안 내는 게 힘들었어요.

첫영성체를 받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서 힘이 쎄진 것 같아요. 다 함께 노래 불러서 재미있었어요.

- 1. 첫영성체 후 느낀 점: 나의 몸에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다.
- 2.첫영성체 후 새롭게 된 점: 항상 함께 예수님이 계셔서 마음이 편안하고, 더 밝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
- 3.가장 뿌듯한 점: 짧지만 재미있었던 첫영성체 수업을 꾸준히, 재미있게 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게 뿌듯하다.
- 4.세례 후 느낀 점: I was glad to be the part of a family of Jesus. 5.세례 후 새롭게 된 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마음이 넓어지고, 가족을 많이 도와줬다.
- 6.가장 뿌듯한 점: 하느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고, 신부님과 친구들을 더 알게 돼서 기뻤습니다.

첫영성체를 받고 예수님께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 기도하기 가끔 귀찮지만, 하고 나면 더 기뻐진다. 기도를 매일 미루지 않고 잘 해야지. 나는 첫영성체를 준비할 때 칠성사를 배웠다. 그중에 하나는 세례성사인데, 세례성사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다. 또 Holy Hiking을 갔을 때 기도문을 못 외워서 부끄러웠다. 또 세례성사를 받는 동안에 물이 너무 차가웠다. 그리고 예전에 내 마음속에 있던 나쁜 말이 없어졌다. 첫영성체 축가를 부를 때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신기한 힘이 용기로 변하는 것 같았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실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I think the first communion ceremony was superb and made me get closer to Christ altogether. By writing down the bible for homework, I learned more about Christ. Additionally, the first communion class gave me information about church. I learned which role I was in. I also feel very proud of myself that I have done first communion perfectly fine. I got to have Christ's body and blood inside me and accepted Christ into my body and soul. I feel happy that Christ can now walk together with me. Although there were hard times like confessing our sins to 신부님, I still feel very happy and proud of myself leading my way to Christ.

I felt excited to receive the body. The bread unexpectedly tasted like chewy wet with the wine popcorn. After the first communion, I felt happy! Before I received the body I felt scared. Now that I had the body I feel special and a part of God. I liked when I went with my tongue to eat the first communion. I didn't like that everybody was looking at us! Writing the bible and doing all the stuff to prepare for first communion was tiring but I'm glad I received first communion! We love God!

I think that baptism and first communion was a great ceremony where I was able to walk with God and it changed my life by helping me realize that the Lord will always help me and that he loves me. During my baptism and first communion, I could feel the Lord's presence as he watched over us and how he helped us when we needed to do our parts. I felt his presence when I was doing my reading during mass, and even though I was nervous, he helped me get it done, and I felt better knowing that he had helped me.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CELL: 530-220-2848

SUE CHO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 1@gmail.com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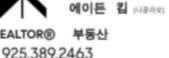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







AIDEN KIM 에이든 김 (니콜라오)





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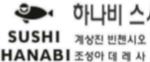
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 925-434-2659

i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Aiden.kim@compass.com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



공지사항

6월 전례 및 주요 일정

- 6월 1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
- 6월 14일(토): 꼬미시움 야유회(트라이밸리 주최)
- 6월 15일: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Father's Day
- 6월 22일: 성체 성혈 대축일
- 6월 27일(금):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 성가브리엘 복사단 모집 및 예비 복사단 가족 모임 안내

- 대상: 첫영성체를 받은 현재 5학년 이상 주일학교 학생
- 일시 장소: 6월 8일 (주일), 오후 12시, 소성당
- o 신청: https://tinyurl.com/TVKCCAltarServers
- 신청 마감: 6월 1일 (주일)
- 문의: 주은경경 루시아 (646-209-5585)
- 자세한 준비 기간과 입단식 일정 등은 추후 공지

●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모임 및 새로운 회원 모집

- 일시 장소: 6월8일 오후1시, Room 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 성모회 "리노 공소 돕기" 물품 사전주문

- 품목: 된장, 고추장
- 접수신청: 6월 1일 8일
- 물품전달: 6/15 (주일)
- 문의: 성모회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 사랑의 모후 꾸리아 6월 월례 모임

- 일시 장소: 6월 8일(주일), 10시 45분, Room A
- 대상: 각 쁘레시디움 간부들

● 장례미사 故 김옥선 실비아

- 일시 장소: 6월 6일(금) 오전 10시, 대성당
- 오전 9시 30분 미사는 없겠습니다.

● 원죄 없으신 모후 꼬미시움 야유회

- 일시: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0:00 부터
- o 장소: Amador Valley Community Park (4301 Black Ave, Pleasanton, CA 94566)
- 대상: 꼬미시움 산하 레지오 행동단원, 협조단원 및 가족

● TVCS 청소년들을 위한 Financial Education class

- o 강사: Celvie Toramaya (Financial professional, Pleasanton chamber of commerce)
- 일시: 6월 22일(주일) 오전 9시 30분 11시
- o 장소: Room A
- o 신청: https://tinyurl.com/tvcsclass

● 주일 학교 교리교사 모집

- 2025/2026학년도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할 교리교사 모집
- 자격: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든 성인 신자(한국어 영어 무관)
- o 문의: 성호승 Augustine (925) 394-4283

• TVCS 4th Annual Soccer Gear Drive

- 새것 혹은 깨끗하게 쓴 축구 및 스포츠 용품 (유니폼, 축구화, 공, 등등) 또는 기부금 (pay to: CRECE)을 받습니다.
- 일시: 6월 30일 까지
- 수집장소: 소성당 앞 수집함 또는 St. Augustin

● 본당 사무장 모집 안내

- 본당 사무장님을 새로 뽑습니다. 사무장으로 봉사하실 의향이 있는 분은 주임 신부님 또는 사목회장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 요일: 화, 목, 금, 주일
- 급여: 시간제
- 본당을 위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Vacation Bible Study (VBS) Registration and Volunteer Signup

- 일시: 8월1일(금),2일(토), 오전9시-오후12시
- o 대상: Pre-K-5th(참가자), Middle-High(Volunteers)
- o 참가비: \$40 per child (after June 1: \$50 per child)
- Registration: https://tinyurl.com/TVKCCVBS2025
- Volunteer Signup: https://tinyurl.com/TVKCC2025VBS

2025 UNITAS - Bay Area Korean-American Young Adult Retreat

- o Date: June 27-29, 2025
- o Location: San Damiano Retreat Center, Danville, CA
- Registration: www.unitasbayarea.org
- Regular registration by June 15 (\$270)
- o For any questions: unitastretreat@gmail.com

• 남성 16차 꾸르실료 참가 신청

- 일시: 7월 24일(목) ~ 27일(주일)
- o 장소: St. Clare's Retreat Center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울뜨레야 간사)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v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	<u> </u>			Bishop's	One endren
교중미사	영어미사	교무금	성소후원	Appeal	합계
\$2057	\$186	\$4160	\$250	\$260	\$6913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건철(4-6), 김성치(5), 이안젤라(5), 이정미(5), 이태원(6), 장찬(5), 조재우(4-6), 조희진(1-6), 최교운(5), 최두은(3,4), 함종식(6), 홍성호(5,6), 황종영(4-6)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건철(4-6), 김성치(5), 이태원(6), 최교운(5), 함종식(6), 황종영(4-6)
- Bishop's Appeal 고건철(4-6), 김성치(5), 이태원(6), 최교운(5), 함종식(6), 황종영(4-6)
- 건축봉헌금
- 감사봉헌금
- 간식봉헌 송형철 다니엘 / 송수경 이레네

